



오늘의 루저라도 내일의 위너가 될 수 있다. 2012년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꼴찌에서 2013년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보스턴 마무리투수 코치 우에하라가 우승을 결정지은 뒤 캐치 데이비드 로스와 께안고 기뻐하고 있다. 보스턴 | AP뉴시스

보스턴 '꼴찌→우승→꼴찌' 올해는?

(2012년~2013년~2014년)

ML 인사이트 | 지난해 꼴찌에서 올해 우승신화 넘보는 세 팀

산도발·라미레스 등 보강...지구우승 유력 시카고, 매든 감독 '염소의 저주' 깰지 주목 텍사스, 필더와 추신수 부활이 반등 열쇠

작년 메이저리그에서 LA 다저스(4만6695명),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4만3711명), 뉴욕 양키스(4만2520명),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4만1588명) 등은 홈경기에서 평균 4만명 이상의 관중 동원에 성공했다. 양키스를 제외한 나머지 3팀은 모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한 강호들이었다.

반면 추신수가 속한 텍사스 레인저스는 67승을 올리며 아메리칸리그 승률 최하위의 수모를 당하고도 홈경기 평균관중 3만 3564명을 기록해 전체 9위에 랭크 됐다. 주축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이 이어져 일찌감치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접었지만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의 발길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꼴찌로 추락하고도 바로 다음에 디비전(지구) 우승은 물론 월드시리즈 정상까지 오르는 사례가 찾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91년은 메이저리그 야구팬들에게 잊지 못할 해로 남아 있다. 전해 디비전 최하위에 머물렀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미네소타 트윈스가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하

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1992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기적의 드라마가 연출됐다. 2007년 이후는 한술 더 떠 무려 5차례나 꼴찌가 일어난다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스토브리그에서 야심 차게 전력 보강을 마친 팀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2015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스턴 레드삭스

가장 최근 꼴찌에서 우승팀으로 탈바꿈한 경험을 지녔다. 2012년 69승93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이듬해 97승을 올리며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공동 1위에 올랐다. 월드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4승2패로 제압하고 팀통산 8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레드삭스는 우승팀에서 디비전 최하위 팀으로 추락하는 굴욕을 맛봤다. 71승에 그쳐 선두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25게임차나 났다.

그런데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레드삭스는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FA(자유계약선수)로 파블로 산도발과 핸리 라미레스를 치열한 경쟁 끝에 잡아 핵 타선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스턴 페드로이아, 데이비드 오티스, 라미레스, 산도발, 마이크 나폴리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의 파괴력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영입한

확실했던 좌완투수 존 레스터를 시카고 컵스에 빼앗겼지만 릭 포셀로, 웨이드 마일리, 저스틴 마스터스 등 중축급을 보강해 아쉬움을 달랬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라스베가스 도박사들의 평가다.

●시카고 컵스

1908년 이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 시카고 컵스가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신했다. 지난 시즌 73승밖에 올리지 못해 또 다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꼴찌에 머물렀지만 당장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릴만한 전력을 갖췄다.

메이저리그에서 탁월한 지략가로 명성이 자자한 조 매든 감독을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존 레스터를 끌어들이며 에이스의 임무를 부여했다. 포수 미겔 몬테로와 외야수 텍스터 파울러의 영입도 전력에 큰 보탬이 됐다. 올스타에 3차례나 선정된 스타린 카스트로와 32개의 홈런을 친 앤서니 리조를 중심으로 호르헤 솔레르, 하비에르 바에스, 크리스 브라이언트 등 유망주들이 성장세를 보인다던 얼마든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다른 디비전보다 월등히 많다. 2년 연속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비롯해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에 나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지난 시즌 초반 선두를 달렸던 밀워키 브루어스 등과 치열한 순위 다툼을 펼쳐야 한다. 유망주를 발굴하는 데 탁월한

재주를 지닌 매든 감독이 탬파베이 시절처럼 매직을 발휘한다면 '염소의 저주'를 깨는 기적의 드라마가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컵스가 지역 라이벌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함께 전력 보강을 가장 알차게 한 팀으로 평가하고 있다.

●텍사스 레인저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팀이다. 우승 후보로 평가된 것과는 달리 추신수, 프린스 필더, 다크빗슈 유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리그 최하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162경기를 치르는 동안 메이저리그 최다인 64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달갑지 않은 기록도 수립했다.

스토브리그에서 레인저스는 요바니 가야르도와 로스 디트월러를 영입해 선발진을 알차게 보강했다. 무릎 부상으로 9월에 들어 6경기에 출전한 좌완투수 데릭 홀랜드가 2승무패(방어율 1.46)로 선전한 점이 위안거리다. 다크빗슈와 홀랜드가 원투펀치를 이룬다면 경쟁력이 있는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타선에서는 필더와 추신수의 부활이 필요하다. 지난해 목 부상을 입은 필더는 42경기 출전에 그쳤다. 추신수는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123경기에 출전했지만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두 선수가 정상 컨디션을 찾는다면 LA 에인절스, 시애틀 매리너스 등과 경쟁력 있는 페넌트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통신원



고창성

NC 고창성의 '절치부심' 공을 아낌없이 던지겠다

하루 투구수 180개 두각...코치들도 흡족

"올해는 후회 없이 공을 던져보려고요." NC 고창성(31)은 비장했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스프링캠프를 하고 있는 그는 "이번 겨울에도 정말 열심히 몸을 만들었다"며 "이제 후회 없이 공을 던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고창성은 최근 몇 년간 이렇다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8년부터 3년간 전 소속팀이었던 두산에서 필승조로 공을 던졌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럼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왜 안 될까?'를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도 긴 고민 속에 얻은 게 한 가지는 있다. "이제 바닥이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고창성은 이를 악물었다. '절치부심'을 가슴속에 새기고 겨우내 삼 달이 땀을 흘렸다. 전지훈련지에 입성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하루 투구수를 180개까지 올리며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빨리 공 개수를 늘린 건 맞지만 이렇게 던지는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어떤 보직이든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공을 아낌없이 던지고 싶다"고 했다.

김상영 투수코치, 지연규 투수코치 등도 고창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공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감독 역시 2일(한국시간) 진행된 청백전에서 청팀 선발로 그를 내세우며 모습을 지켜봤다.

기대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고창성은 이날 2이닝 2안타 1실점으로 패전을 떠안았다(0-4 백팀 승리). 그러나 2이닝 동안 투구수가 20개에 불과했고, 1사 1·2루에서 2루수~유격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속아냈다. 위기 때 사이드암스로의 가장 장점인 병살타 유도도 이닝을 종료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NC로서는 고창성의 부활이 절실하다. 지난해 팀 허리를 든든히 받쳐줬던 원종현(30)이 대장암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공백을 메워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창성이 예전 위력적인 모습을 되찾는다면 NC로서도 큰 힘이 된다. 고창성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나중에 아프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올해는 아낌없이 공을 던지고 싶다"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물론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팀내 치열한 경쟁에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선결과제를 풀기 위해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마를 새가 없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

4인분 주문하면 4인분이 공짜

소갈비살 4인분+4인분
생삼겹살4인분+4인분
소고기3종세트(부채살+등심+소갈비살)
바비큐3종세트(삼겹살+스테이크+족립)

NAVER 두배마니 검색

- * 두배마니는 참숯직화석쇠로 삼겹살을 구워 맛있습니다.
- * 두배로 맛이 있어 손님이 두배로 많은 집
- * 두배마니는 두배로 많이 주는 소문난 집

광고하지않고 소문으로만 가족끼리 성공릴레이 오픈 매장들

두배마니 세가지 약속- 맛, 양, 가격을 최고로 지키겠습니다.

홍성점	거창점	정읍점	남원점	안산선부점
일매출 40만원을 팔던 죽었던 횡집매장을 '두배마니'로 바꾼 뒤 10배의 매출이 높아 친구 남원점 소개오픈	홍성점 조카분이 기존 고기집을 리모델링하여 대박난 성공릴레이 매장	거창점 점주님의 친형이 정읍에 오픈하여 성공릴레이 매장을 이끌고 있고 제2매장 오픈준비중.	회사에 다니다 친구인 홍성점 점주 소개로 남원에 처음 고기집을 오픈하여 남원 맛집으로 선정된 즐거운 매장	홍성점 지역 선배에게 소개해서 안산에 성공릴레이 오픈 성공중.
(041)632-4982	(055)942-5291	(063)538-3013	(041)632-4982	(031)401-6770

두배마니는 주년상권 매출1위를 목표로 합니다!!!

체인점 모집 1600-0684

전화주시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